

선인의의, 상상력

56
webzine
담談

2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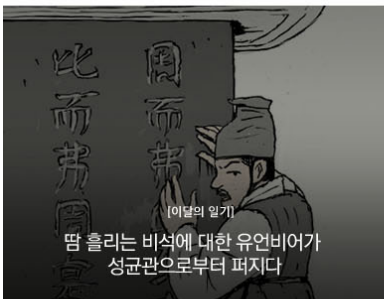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해양 모험 판타지
태원지(太原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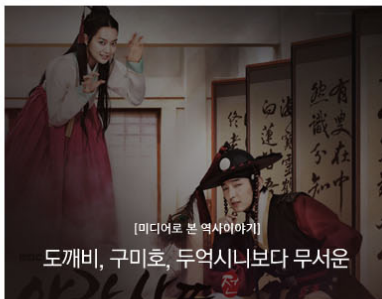
가을밤,
어둠에 잠기던 조선의 무서운 이야기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저승의 모습
지옥도(地獄圖)



[이달의 일기]
땀 흘리는 비석에 대한 유언비어가
성균관으로부터 퍼지다



[미디어로 본 역사이야기]
도깨비, 구미호, 두억시니보다 무서운



잠깐!
스토리테마
파크에서
놀자!
[스토리이슈]
스토리테마파크 공모전
최종 작품 프로모션

담談

소리를 내어 읽으면 '담담'

뜻으로 보자면 '이야기와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이를 떠들썩하지 않고 단정하게 표현하고자 하며 여기에 옛 정신과 현대 정신의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를 담은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은 매달 선정된 주제에 따라 관련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선별하여 창작자들에게 소개하고, 창작자들은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자유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웹진에 선보입니다.

'담談'은 2014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달 1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상력

천준아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괴이한 짐승의 이야기가 최근 ‘물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제작자들은 중종실록 속 몇 줄의 기록에서 상상력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의 생김새는 아래 기록된 내용이 전부였는데요.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文昭殿) 뒤에서 나와 앞 묘전(廟殿)으로 향하는 것을...(후략)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9일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馬)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후략)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5월 21일

개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한 거대한 괴수가 조선 시대 광화문 앞으로 뛰어나와 포효하면 어떨까, 감독은 저 문장들 사이에서 이 광경을 상상했다고 하죠. 흡사 개와 말을 닮은 괴물은 ‘해태’의 모습으로 구체화 되었고, 오래된 글에서 길어 올린 생경한 장면 하나는 한 편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과거 선인들의 상상력이 현재의 상상력을 만나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죠.

조선 시대 몇 줄의 기록을 토대로 무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의 막이 곧 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총 26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2015년 첫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던 ‘네가 연애를 아느냐’는 15부작 웹드라마로 제작돼 네이버 TV캐스트에서 방영되었고, 2016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헬조선: 노비신분사기극’은 영화사 더퀸AMC와 계약을 맺고 현재 시나리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가 연애를 아느냐’는 세종, 성종, 연산군의 기록을 훑는 와중에 공통으로 풍류를 좋아하고 여자를 가까이했던 기록에 기초해 세 명의 왕을 현대의 연애키투로 상상해 발전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헬조선: 노비신분사기극’은 빈번했던 민란 이후,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설치한 관청, 삼정이정청의 실패 기록에 주목하며 우연히 양반의 호패를 손에 넣은 노비신분의 주인공이 위태로운 조선을 바꾸려 한 과정을 상상한 내용입니다. 켜켜이 먼지가 앉은 오래된 활자들이 현대의 상상력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이 공모전인 셈입니다.

10월 담談의 주제는 ‘선인의 상상력’으로 정했는데요. 조선 시대에 창작된 소설 가운데도 놀라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 있습니다. 임치균 선생님은 ‘조선판 서유기’ 혹은 ‘조선판 걸리버 여행기’라고 일컬어지는 ‘태원지’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조선 시대에 쓰인 소설에 대한 편견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상상력입니다. 짧은 소개임에도 불구하고 스펙터클한 장면

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공병훈 교수님은 조선 시대 상상력을 다각도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계암일록에 나온 괴소문부터 귀신을 쫓는 방상시, 무척 흥미로운 나무 괴물에 대한 그림과 기록, 그리고 용머리에 이리 몸을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상상력에 탄복하게 됩니다.

홍윤정 작가님은 전설, 신화, 민담 속 이야기를 확장한 상상력으로 완성된 미디어 작품들을 예로 들어 얘기해주셨습니다. 읽다 보니 올해 공모전에서 쏟아져 나올 창작물들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시간을 거슬러 원시로 가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상력은 전에 없던 무언가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본 새로운 세계일 텐데요. 조선 시대 선인들의 상상력을 파고 들어가면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태평성대와 상상은 쉽게 어울리지 않듯 상상력은 본래 어렵고 힘든 과정을 돌파하는 힘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10월, 상상력을 끌어올려 조금은 더 명량한 한 달이 되길 바라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해양 모험 판타지 “태원지(太原誌)”

조선 시대 상상력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과 그것을 둘러싼 4개의 오랑캐를 벗어난 세계는 귀신이 살거나 요괴가 사는 땅으로 생각하였던 듯하다. 우리는 그 증거를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 지은 <외족지사(外夷竹枝詞)> 122수에서 찾을 수 있다. 조수삼은 특히 말미에 “바다 가운데의 여러 나라”라며 아홉 나라를 따로 분류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나라로 우리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 하나인데, 나라 이름 자체에 귀신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귀국(鬼國)은 서북 바다 가운데에 있다.
그곳 사람들은 밤에 다니고 낮에는 숨어있다.
사슴 가죽옷을 입고 사는데, 눈과 귀는 사람과 같으나
입은 머리 위에 있어 뱀과 사슴을 씹어 먹는다.

대낮에는 깊이 숨어 지내고 어두운 밤에만 다니니 온 나라가 모두 귀신이라
사슴 가죽옷 입고 뱀을 먹으며 추위와 더위를 몰라
이마 위에 있는 입 열며 큰소리 지르네.

결국 중국 밖의 미지 나라들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생각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귀신이나 요괴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고전소설 가운데 4권 4책의 <태원지>는 바다 너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기발한 상상을 하고 있다.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마치 현대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우주 너머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으리라고 상상하고 그 나라를 찾아가려는 것과 유사하다.

<태원지>는 한국 고전소설로는 유일하게 해양 탐험을 통한 새로운 대륙 발견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인들의 상상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 후기에 대두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있지 않나 싶은 것이었다. 분하고 분했다.

그런데 근자에 들리는 풍문에 귀하디귀한 암행어사께서 언양에 곧 당도한다고 했겠다. 이 어찌 가뭇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니라. 암행어사님이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타는 마음에 생수라도 부은 듯이 집안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언양 북면(北面) 천소리(泉所里)에 있는 큰집에서는 암행 어사또에게 올릴 청원서를 작성할 굵고 튼튼한 백지를 장터 지전(紙廩)에서 샀다. 집안 어른들은 집안의 장년층 중 글씨깨나 쓰는

몇몇을 골라 불러들여 대청마루에 앉히고 밥도 든든히 먹이며 긴긴 이야기 끝에 이윽고 절절한 청원서를 써 내려가게 하였다. 글씨는 꽤나 잘 써갔지만, 절박한 맘에 청원서 종이가 참 볼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궁여지책인 것을... 암행어사에게 올리기 위해 그들이 썼던 청원내용을 아래와 같다.

하늘의 명을 받은 오랑캐

<태원지>의 주인공은 천명(天命)을 받은 임성이다.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임성이 나라의 건국 주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웬지 <태원지>에서는 묘하게 방향이 뒤틀린다.

어젯밤에 하늘의 움직임을 우러러 살펴보니 모든 별이 제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고, 나라에 불길하다는 혜성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랑캐의 천명이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성이 천명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오랑캐에게도 여전히 천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렇다면 임성이 받았다는 천명은 무엇이란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임성에게 천명이 있음을 안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군사를 보낸다. 임성 일행은 결국 죽지 않기 위하여 나라를 떠나 바다로 나선다. 그런데 그들은 바다에서 예기치 않은 바람으로 인하여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공간으로 향하게 된다. 이들은 아무리 뱃머리를 돌리려고 애를 써도 헛수고였다.

“우리 모두 물길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바다에서 이런 큰바람을 만났으니 이 무슨 징조란 말인가?”
종황이 급히 소매 안에서 한 짐패를 꺼내 보고 크게 놀라 말하였다.
“가장 불길한 징조요. 큰바람을 만나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징조란 말이요.”
이 말을 듣고 급히 배를 옮겨 안전한 언덕에 대려고 하는 순간, 물 가운데에서 거센 바람이 불며 하늘에 닿을 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작은 배는 뒤집어질 듯 말 듯 요동쳤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나간 채 뱃전을 붙잡고 엎드렸다.
돛대가 꺾이고 돛줄이 끊어진 배는 바람에 나뭇잎같이 빠르게 이글거려서 순식간에 천 리를 이동하였다.

바다 너머 미지의 세계

이곳에서 임성 일행은 신장이 일丈(약 5m)이나 되고, 몸은 쇠, 머리는 구리로 되어 있어,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응천장군이라는 이물(異物)을 만난다. 임성 일행이 응천장군을 제압하고는 다시 바다로 나선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를 돌리기만 하면 거센 풍파가 몰아쳐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임성 일행은 바람에 배를 맡기며 고된 항해를 계속한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섬나라를 발견하고, 그곳에 오르며 요괴를 만나는 일이 반복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쥐가 변한 요괴가 사는 나라에 도착하여 고난을 겪다가 고양이 부적으로 잡는다.
2. 큰 이무기가 지키는 나라에 도착하여 위기에 처했다가 석황(石黃)으로 처리한다.
3. 원숭이가 난리 치는 나라에 도착하여 힘겨워하다가 술에 탄 독약으로 처리한다.
4. 예쁜 여인으로 변한 여우를 만나 유혹당하다가 개가죽으로 물리친다.
5. 거대한 지네를 만나 그 독에 당하다가 닭으로 제압한다.
6. 해중에서 옥새를 얻는데, 남해 용왕이 탐을 내다가 도망간다.
7. 사람의 뼈로 된 해중 잡귀를 잡아 죽인다.
8.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보는 천리안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듣는顺风이라는 괴물을 만나 전투를 통해 죽인다.

쥐와 그 천적인 고양이, 뱀이 싫어하는 석황, 즉 비소, 원숭이와 그가 좋아하는 술, 여우와 개, 지네와 지네를 쫓아 먹는 닭의 구성이 매우 흥미롭다. <태원지>를 읽는 조선의 독자들은 그 향의 대립에 대하여 수궁하고 납득하였을 것이다. 익숙하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여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예상과 같이, 여우들은 모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여인들이 얼굴과 자세를 가다듬고 소리를 나직이 하여 말하였다.

“첩들은 여인국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본래 여인국을 알고 있소. 그 여인국은 중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이따금 들어와 조공을 하였소이다. 허니 어찌 이렇게 먼 곳에 여인국이 있겠소?”

그 여자들이 서로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첩들인들 어찌 여인국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까? 허나 그 여인국의 사람들은 크고 얼굴이 추악하며 흉악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아름답습니다.”

오랜 항해에 지친 임성 일행은 여인국 여왕의 초대에 현혹되어, 그들과 혼인을 약속한다. 바다로 나가지만 하면 자꾸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상황에 염증을 느낀 이들에게는 천명이고 뭐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정착하고 싶었던 욕망이 더 컸을 수도 있다. 항해 마지막에는 어디라도 볼 수 있는 천리안과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는顺风이라는 무시무시한 요괴가 등장한다. 현대의 CCTV와 도청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중국, 그 이상의 세계관

<태원지>에서 이러한 해양 탐험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곳이 ‘태원’이다. ‘태원’은 다섯 나라가 균형을 이루고 사는 공간이다. 그런데 ‘태원’ 사람들은 중국을 모르고, 임성 일행은 태원을 모른다. 이들은 서로의 역사를 공유한다. 이때 중국 역사에 대한 서술은 <동몽선습>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태원’에 대해서 알고 난 후, 임성 일행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식한다.

임성과 중황이 놀라 탄식하며 말하였다.

“태원에 대한 말을 듣고 나니 꿈에서 처음 깨어난 것처럼 시원합니다.”

이로써 임성과 종황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다. 아마도 당시의 독자들 역시 이 부분에서 같은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설사 믿지는 않더라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볼 여지는 생겼을 수도 있다.

이제 <태원지>에서 처음부터 제기한 “천명”이 남아 있다. ‘태원’은 애초에는 태평성대의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혼란의 극치를 보여준다.

삼 년 전에 다섯 나라에서
 ‘다섯 별이 빛을 합하여 서방을 비추고 있구나.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음이여, 큰 집을 이루는구나.
 백성이 평안함을 생각하는 것이 덕재에게 달렸도다.’라고 하는
 동요 한 곡이 불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습니다.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는 말은 수풀 임(林)자요,
 ‘집을 이룰 것이다’는 말은 장군의 이름이 이를 성(成)자니
 반드시 대업을 세운다는 뜻이고,
 ‘다섯 별이 합한다.’는 말은 다섯 나라를 통일시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서방을 비추다.’는 말은 장군이 서쪽에서 온다는 말이요,
 ‘백성의 평안함을 생각하는 것이 오직 덕재에게 달렸다’는 것은
 장군의 자(字)가 덕재이니, 백성이 장군의 덕을 입어 길이 안락하리라는 말이니
 다시 무슨 의논이 필요하겠습니까?”

임성의 천명이 ‘태원’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임성 일행이 쫓겨서 ‘태원’에 이르게 된 연유가 모두 이해가 된다. 이제야 임성의 천명이 실현되는 일만 남았다. 이후 임성은 여러 번의 전쟁을 수행하여 다섯 나라를 통일하여 임금의 자리에 오른다. 이때, 전쟁 장면에서는 <삼국지연의>를 활용한다. 그 이유는 ‘독자들의 익숙함’ 때문이다. 익숙함은 알고 있음에 따른 친근함과 흥미를 더해준다.

<태원지>는 조선 왕실에서 읽었던 소설이다. “낙선재본 소설”에서 읽은 소설로 불리기도 하는 조선 왕실의 소설에는 선인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녹아 있다. 남녀의 성이 서로 바뀌어 태어나는 <한조삼성기봉>, 악룡을 퇴치하는 도술전을 그린 <영이록> 등이 일예이다. 조선 왕실의 소설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문화 콘텐츠로서 손색이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 낙선재본 소설 : 조선 왕실의 도서 소장처가 창덕궁 낙선재였던 까닭에 조선 왕실 소설을 낙선재본 소설이라 부른다 (편집자 주)

작가 소개

임치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 전공 교수
 고전 소설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한 창작 소설 《검은 바람》과 고전에 대하여 쉽게 풀어 쓴 《고전 소설 오디세이》를 펴냈으며, 《운영전: 왜 금지된 사랑에 빠질까?》를 썼다. 이 밖에 《조선조대장편소설 연구》와 《조선 왕실의 소설》 시리즈 등도 썼다.

어둠에 잠기던 조선의 무서운 이야기들

하나의 시대가 저물어 어둠에 잠기면

가을밤의 휘영청 둥근 달이 초승달이 되고 그믐달로 변하면서 비가 한두번 내리면 세상은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 선다. 풀벌레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고 어느새 조용해진 가을 밤이면 가족,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또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시기가 온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어 어둠에 잠기고 지난 세월을 밝혀주던 철학들은 혼돈에 빠져든다. 이야기들과 상상력은 현실의 경험과 민중들의 삶과 많은 관련이 있다.

김령(金玲)은 1607년 5월의 일기 『계암일록(溪巖日錄)』에 사람의 쓸개를 모으다는 헛된 소문이 파다하여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 가고, 한두 사람은 감히 길을 가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1623년 1월에는 형혹성이 남두(南斗)를 침범하였고. 남산에서 울던 노루가 대궐로 들어갔는데, 용이 싸워 죽었으니 변란이 일어날 조짐이라는 내용을 일기에 담아 둔다. 이 이야기는 일본과의 7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해를진 상황과 연결된다.

군주를 중심으로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태도로 정치를 운영해 이상적 사회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왕도사상(王道思想)과 명나라와의 사대적 관계, 그리고 농업을 기본으로 운영되던 조선의 근본 체제는 이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무너져 버렸다.

더구나 세도정치와 함께 조선의 석양이 시작하고 상품경제가 성장되던 18세기와 19세기에는 많은 방각본(坊刻本) 소설들이 등장한다. 『양반전』, 『예덕선생전』, 『호질(虎叱)』, 『허생(許生)』,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春香傳)』, 『심청전(沈淸傳)』, 『흥부전(興夫傳)』, 『토끼전』 등 자유로워진 생각들은 상상의 이야기들을 피워낸다. 한글을 익힌 민중들이 책을 읽고 그들의 문학적 욕구와 정서가 군담소설이나 애정소설 등에 수용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를 소설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 두 개는 이승을, 눈 두 개는 저승을 보는 방상씨

방상씨(方相嘯)는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했다. 궁중에서는 임금 행차나 사신 연접 때 붉은 옷에 가면을 쓰고 나타나 무언가 때리기도 하고 불이나 색깔로 위협하며 악귀를 쫓으며 후위하는 역할을 한다. 장례 때에는 맨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묘지에 도착하면 시신이 들어갈 자리의 네 귀퉁이를 쳐서 잡귀를 없애 버렸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국상을 치를 때 방상씨를 태운 수레 4대에 배치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왕릉터에 도착하며 방상씨탈을 쓴 4명이 묘지터에 도착하면 관에 묻기 전에 잡귀를 쫓는 것이다. 왕실에 쓰는 것은 붉은 칠을 한 가면에 신성함을 상징하는 황금색 4개의 눈에 검은 색 옷과 치마를 입었다고 한다.

선달그믐 날 저녁, 귀신을 쫓는 구나(驅儼)의 일을 관상감(觀象監)에서 맡아서 했다. 이 날 저녁 관상감에서는 구나의 무리들을 데리고 창경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구나의 무리에는 붉은 옷에 가면을 쓴 창사, 황금 빛 네 개의 눈이 있는 가면을 쓰고 곰의 가족을 뒤집어 쓴 네 명의 방상시, 붉은 옷에 가면과 화립을 쓴 지군, 녹색 옷에 가면과 화립을 쓴 판관 다섯 사람, 네 명의 조왕신, 녹의홍상에 여자 가면을 쓴 소매, 12동물의 가면을 쓴 십이신 등이 있었다. 이들은 창사가 주문을 외우면 이를 숙연히 들은 후, 노래를 부르고 북과 징을 치면서 귀신을 쫓으며 꺾 밖으로 나간다.



황금빛 네 개의 눈이 달린 방상시탈(좌), 방상시 캐릭터(우)
출처 : 문화콘텐츠닷컴

조선의 궁중에서 방상시탈을 사용한 데는 18세기 정조 때부터 탈춤과 춤으로 명성을 날린 예인 탁문한(卓文漢)에 의한 것으로 최근에 밝혀진다. 탁문한은 양민 출신으로 검술과 조형물 만드리에 뛰어난 장인(匠人)으로서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행하는 공연예술인 나례(儼禮)에서 공을 세운 명분으로 종2품의 가선대부(嘉善大夫)라는 품계까지 하사 받았다. 그는 방상시 탈과 죽산마(竹散馬·대나무를 사용해 만든 말)의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변수(匠人邊首)로 활약하면서 1776년 영조 국장과 1800년 정조 국장을 포함해 40여 년 동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례에서 최고책임자로 활동한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의 나무 괴물

질서가 붕괴하고 혼돈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공자는 사회 위기의 원인을 천하무도(天下無道)으로 보고 주나라의 질서이던 주례(周禮)에서 길을 찾았다. 현실 문제 해결 방안을

사회적, 경제적 개선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윤리적 측면에서 찾았다. 제자가 조상의 영혼과 귀신을 섬기는 법을 묻자 ‘아직 능히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 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고 답했고, 죽음에 대해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 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답했다. 사후의 삶 같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접고 삶의 경험에 충실하고자 했다. 또한 조상 이외의 다른 신에 제사 지내는 것을 꾸짖었으며, ‘귀신을 공경은 하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 말했고 괴력난신(怪力亂神)의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성리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으로서 실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흥미로운 사례가 조선 실학의 토대를 마련한 이익(李瀾, 1681~ 1763)이다. 이익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후의 시대를 살아간 인물이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아버지의 유배지에서 태어나 20대 중반에 정쟁으로 참혹하게 죽는 형을 목격하고 그는 관료의 길을 접고 농사를 지으며 공부에 집중한다.

천문학 공부와 서양 자연과학에 영향을 받아 지구가 둥글고 중력과 자전의 원리,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한다고 설명한다. “부자는 끝없이 넓은 땅을 차지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꽃을 만만 땅도 없다”면서 농사를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소유여야 하는 토지의 개인 소유와 국가의 중간 착취를 비판한다.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이익이 40세 전후부터 책을 읽다가 느낀 점이 있거나 흥미있는 사실이 있으면 그때 그때 기록해 둔 것들을 그의 나이 80에 이르렀을 때에 집안 조카들이 정리한 책이다. 이 문집 제6권 「만물문(萬物門)」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나무 괴물’을 뜻하는 목요(木妖)에 대한 설명이다.

나무와 돌이 오래 묵으면 요사한 귀신이 붙는다는 전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 대개 나무는 나서 왕성하는 기(氣)가 있고 이 기에 따라 알고 깨닫는 성질도 있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저 돌과는 같지 않은 듯하다. 이렇므로 요사한 귀신 따위가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는 나무란 오랜 세월을 지나면 속이 자연 비기 때문에 괴이한 물건들이 그 속으로 들어 가서 살게 됨은 이치로 보아도 그럴 듯하다. 요즈음 어떤 신씨(申氏) 한 선비가 그의 조상 산소 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베었는데, 갑자기 요귀(妖鬼)가 나타나 그의 집까지 따라 와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함께 교접까지 하였다.

여러 가지 주문(呪文)을 외우면서 쫓으려고 해도 떠나가지 않고 밤만 되면 반드시 잠자리를 함께 하는데 한결같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똑 같았다. 결국 정이 서로 가깝게 되자, 그는 병이 생겨서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오래 묵은 여우가 화해서 이런 빌미를 만들었을 것이다.

대개 예나 지금이나 요사한 귀신이 사람에게 간음하는 것은, 귀신은 반드시 수컷으로 되고 여우는 암컷으로 된다는 것이다.

또 완성군(完城君) 이만(李曼)은 전라감사(全羅監司)가 되었을 때 그 전주부(全州府) 안에 있는 고목(古木) 한 그루를 베었더니, 나무 속이 썩어서 구멍이 생겼는데 흡사 말과 같은 짐승이 들어 있었다. 털도 없고 크기는 고양이만도 못하며 눈은 하나로 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꿈틀꿈틀하는 것이 움직이긴 하였으나 바람을 쏘이고 햇볕을 보자 그만 죽고 말았다 한다. 이 이야기는 감사(監司) 김시진(金始振)이 친히 이만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이도 만약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었다면 반드시 요사한 귀신으로 변해서 사람을 속였을 것이다. 이로 본다면 오래 묵은 나무를 베는 이로서는 조심해야 할 일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조선 후기의 작가 미상의 작품인 [해상명부도 8폭 병풍(海上冥府圖八幅屏風)]에 나무 괴물로 추정되는 2개 나온다. 그림에서 첫번째 나무 괴물은 장검을 든 무사의 갑사 아래 돌집을 나르고 있으며, 두번째 장검을 든 사슴을 닮은 괴물 옆에서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세번째 나무괴물은 [해상명부도 8폭 병풍]의 세계 전체를 관장하는 듯한 호랑이를 닮은 맹금류 괴물의 호위무사 같은 모습으로 긴 창을 들로 용감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 나무 괴물들의 공통점은 머리에서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해상명부도 8폭 병풍]에는 바다 풍경에 수십91종의 조선 시대 괴물들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2013년 경복궁 고궁박물관 뱀특별전시회에서 조선 후기 작가 미상의 민화(民畵)로 소개된 박진감 넘치고 성리학과 봉건제도의 지배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진 창작과 상상력의 폭발력을 보여준다.

용머리에 이리 몸을 한 아이

1894년 농민들이 봉기하여 전주성을 점령하고 고종(高宗)이 청나라에 농민군 진압을 요청하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군이 따라들어와 경복궁을 점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을미사변(乙未事變)이 일어나고 의병들의 봉기는 임진왜란 이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歲不共之讐)'라고 부르던 일본군에 의해 토벌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리고 1904년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제 몸을 닦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修己以安百姓)”느니 “임금(君)은 임금답고, 신하(臣)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구절들을 읽던 유생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뒤송송한 세상에 퍼지는 소문들에 꼬리를 물었다.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는 서책의 문구가 무색하게 생각은 상상상이 되고 상상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되어갔다.

1904년 8월, 최근 박주대(朴周大)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상일월(渚上日月)』에 적어 놓는다. 의성의 금성산 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생김이 흡사 괴물 같았다 한다. 용머리에 이리 몸을 하고 온몸에 털이 나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물어 죽이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어머니는 도망하고, 아버지가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부부는 해괴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들 보다 먼저 아이가 집에 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다시 이 아이를 땅에 파묻었는데, 묻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역시 살아서 먼저 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가 말하기를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안동에 있는데, 아직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괴이한 요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이야기 속, 조선의 집단 무의식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집단 무의식이 무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집단 무의식은 '옛 조상이 경험했던 의식이 쌓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정신의 바탕이며 경향'이라는 것이다. 융과 그의 동료들은 집단으로 전승되는 신화·전설·민담을 집단무의식의 '원형(archetypes)'이 녹아들어 있는 지혜의 보고(寶庫)로 여겼다.

이야기에 담긴 경험과 상상력은 조선시대 삶과 현실에 많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창조하고 소통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운영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생각이 다양한 만큼 이야기의 영역과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 종교, 체제의 특성을 달리하는 수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중에는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와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 또는 일시적으로 떠도는 이야기가 있고 오랜 세월을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 형태에 따라 사실적인 이야기를 서사의 형태로 창작한 것과 허구적인 이야기를 상상하여 창작한 것이 있다. 그 창작의 주체는 무서운 이야기 속에 담긴, 어둠에 잠기던 조선의 집단무의식이다.

작가 소개

공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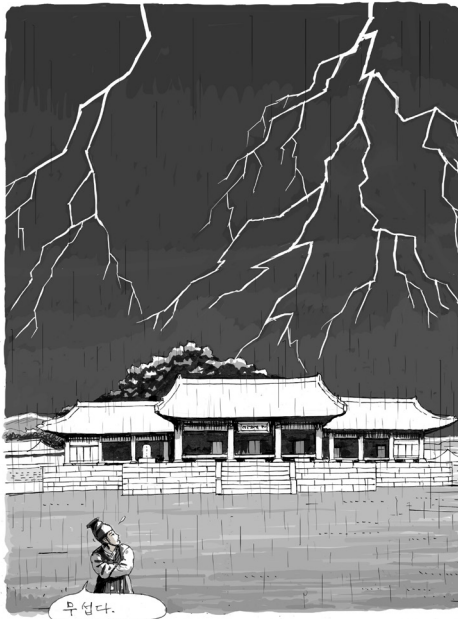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앱(App) 가치 네트워크의 지식 생태계 모델 연구에 대한 박사논문을 썼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디어 비즈니스, PR, 지식 생태계이며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 상식사전』 등이 있다.

참고자료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 방상시
한국고전종합DB : 성호사설
국립민속박물관 : [해상명부도 8쪽 병풍]
블로그 까마구동지

땀 흘리는 비석에 대한 유언비어

삽화 정용연



1852년 9월 26일

지난 3일 동안 내내 비가 오고 춥더니 26일 밤에는 거의 닭이 울 무렵 천둥 번개가 치고 큰비가 내렸다. 낮 동안은 맑았지만 몹시 춥기까지 했다.

1852년 9월 28일

역시 새벽에 비가 내리더니 맑다가 날씨가 내내 흐렸다. 그런데 낮에 성균관 사람들이 탕평비(蕩平碑) 앞으로 분주히 앞다투어 달려갔다. 그들은 모두 '비석이 땀을 흘린다'고 말하며 매우 괴이하게 여겼다.



이때 재반수(齋班首)인 이종희(李鍾憲)가 건복(巾服)으로 성묘비(聖廟碑)에 들어가 살피니, 과연 물기가 어지럽게 흘러 마치 사람의 얼굴에서 땀이 나와 흐른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의아스럽고 괴이하게 생각되어 직접 가서 탕평비를 살펴보았다. 성전비(聖殿碑)를 살펴보니 과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았다. 그러나 돌이 어찌 땀이 나겠는가? 요즘 날씨가 따뜻하면서도 습하고 또 흐려서, 그 혼습한 기운이 품질 좋은 돌에 닿아서 자연히 생긴 물기인 것이었다. 마치 남포벼루(藍浦硯)에 입김으로 먹을 가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소순이 이른바 ‘주춧돌에 물기가 있어 축축하면 비가 올 징조(礎潤而雨)’라고 한 것과 같았다. 예로부터 ‘비석에 땀이 난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 이런 예이다.



심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좋아하는 것이 말이다. 역시나 이튿날이 되자 비석에서 땀이 난다는 이야기가 장안에 널리 퍼졌다.

땀 흘리는 비석에 대한 유언비어가 성균관으로부터 퍼지다

* 출전 : 임재일기(林齋日記)

『임재일기(臨齋日記)』는 임재(臨齋) 서찬규(徐贊奎, 1825~1905)가 기록한 생활일기로 1845년 정월 1일부터 1861년 5월말까지 16년 5개월간의 일기이다.

* 저자 : 서찬규(徐贊奎, 1825~1905)

관은 달성(達城) 자는 경양(景襄), 호는 임재(臨齋) 아버지는 홍렬(洪烈)이며, 어머니는 흥해배씨(興海裴氏)로 응수(應수)의 딸이다.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1864년 생원시에 합격, 도천(道鵲)에 다섯 번 오르고 암행어사의 추천도 받았으며, 1883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수동재(守東齋)를 지어놓고 후진교육에 심혈을 경주하였다. 조병덕(趙秉德)?최익현(崔益鉉)을 중용하면서 경전에 대한 질의와 한말의 사회, 정치적 사변으로 인한 문제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조선 영조대 탕평비



탕평비는 1742년(영조 18) 영조가 자신의 탕평책을 중외에 표방하여 경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영조 자신이 친서하여 이를 비에 새겨 성균관의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운 것이다. 영조는 왕세제시절에 당쟁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즉위하자마자 당쟁의 조정에 힘을 기울였다. 1725년(영조 1) 1월 당쟁의 폐를 통언(痛言)하면서 봉당을 조성하는 자는 종신토록 금고(禁錮)하여 국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1727년에는 노론의 장기집권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자 노론의 강경파를 축척(黜斥)하고 소론을 등용하였으며, 또 양파의 조정에 유익하여 노론의 영수와 소론의 영수를 친히 불러 융화를 주선하였다. 이어 왕은 각 파의 언론훈자를 등용하여 탕평책을 펼쳐나갔다.

탕평책의 하나로 청요직의 자리에 각 파의 인물을 균형있게 등용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

기도 하였다.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자 어느 정도 탕평정국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이제는 정계에서 밀려난 남인·소북 등의 인물도 등용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어느 당파에 대한 인물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742년에는 자신의 탕평정책을 알리고 열의를 과시하기 위하여 유학의 본산이며 관학의 최고학부인 성균관유생들에게 경계문구를 새긴 탕평비를 성균관 반수교 위에 세웠다. 왕은 『예기』에 있는 구절 중 “신이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라고 친서하여 비에 새겨 성균관에 세웠던 것이다. 현재 성균관대학교내에 보관되어 있다.

작가의 한컷



대구 달성 출신의 성교관 유생 서찬규.
인기가 쓰여지던 시기는 1852년으로 우리 나이 스물 여덟이었다.

작가 소개

정용연



작가 자신과 가족 이야기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그린 "정가네소사" 1,2,3 권이 있고 현재는 고려말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다룬 "목호" 출간 준비중이다.

도깨비, 구미호, 두억시니보다 무서운

종교를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믿는 신의 기적을 보길 바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가끔은 신이 현신해서 날개라도 펼럭이며, 아니 아쉬운 대로 옷자락이라도 휘날리며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뭔가 계시를 내려주길 바란다. 세상에 악이 창일하는 바로 그 순간 신이 나타나 두 팔을 들어 올려 일시에 악을 대청소해주고, 선한 이들에겐 바로바로 보상을 해준다면 모두 신의 존재를 믿게 되고, 세상은 좀 더 살 만 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란, 믿음이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UFO 혹은 외계인, 귀신을 포착했다는 여러 장면들이 올라와 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댓글들은 하나같이 ‘조작이네’, ‘합성이네’, 또는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같은 것들이다. 전문가의 증언까지 동원하여 ‘사진 속 UFO는 결코 합성이 아니다’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한 마디로 사람들은 보인다고 믿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동영상에 발달한 이 시대에 만약 예수가 나타나,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전 세계에 라이브로 방송한다 해도 역시 믿을 사람만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정작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은 보이는 저 너머에 있으니까.

1976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내게는 밤마다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볼다 끈 깜깜한 방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이부자리에 누워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이었다.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중 제1곡 ‘조각배(En bateau)’의 첫 부분이 들리고 나면 “전설 따라야~ 삼천리 이~” 부드러우나 장중한 남자 성우의 목소리와 함께 이내 뱀이나 여우, 귀신, 사또, 예쁜 처녀 혹은 과부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난 그리 무섭을 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 무섭다 싶은 순간엔 어머니 손을 꼭 쥐었다. 다행인 것은 그 때문에 꿈자리가 사나운 적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끝날 땐 역시 한국 전설답게 늘 훈훈한 감동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듬해 <전설의 고향> TV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전설따라 삼천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추억만큼은 무엇보다 소중한 생생하다.



<전설의 고향> 구미호 편에 출연한 배우
좌측부터 한혜숙(1977년), 김지영(1999년), 박민영(2008년)

<전설의 고향>은 1977년부터 89년까지 장장 12년 동안 방송되었다. 이후 몇 년간 여름마다 납량특집으로 방송되었고, 영화는 물론 수목드라마, 웹툰, 만화, 소설 등 다양한 장르로 두고두고 생산되었으니 ‘기이하고 불가해한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특히 ‘구미호’ 에피소드는 인기가 있어 몇 번씩 다시 만들어질 때마다 당대의 최고 여배우가 캐스팅되어, 누구의 분장이 더 무서운가 배틀 아닌 배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미호는 이후에도 <구미호외전>, <구미호 여우누이뎐>,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 다양한 내용의 드라마로 각색되면서 우리 고유의 공포 캐릭터로서 따라올 수 없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12년 방송된 20부작 드라마 <아랑사또전> 역시 전설의 고향에서 즐겨 다루는 원한 서린 처녀 귀신과 사또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는 시대 흐름에 맞게 귀신 아랑의 캐릭터를 상큼한 천방지축으로, 사또를 까칠하고 쿨한 캐릭터로 설정해 그들 사이에 로맨스를 채워 넣었다. 극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코믹하고 상쾌하다. 아랑을 잡으러 다니는 저승사자나, 옥황상제와 염라대왕, 그리고 저승의 모습들이 영화 <신과 함께>와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들 모두 우리나라의 저승관을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2년도 방송된 MBC 드라마 <아랑사또전>과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포스터

설화 속 존재를 현대로 꺼내 와 성공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중 2016년의 드라마 <도깨비>를 빼놓을 수 없다.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를 연기한 배우 공우, 김고은은 물론, 조연들까지 고루 빛난 드라마였고, OST 역시 발표하는 족족 화제가 되었다.

설화 속 도깨비는 큼직한 체구에 뿔을 단 채, 씨름하자고 덤비다가 빗자루로 변해버리는 어딘지 멍청하고 순박한 존재였다. 그런 도깨비를 ‘저주를 받아 불멸 불사의 삶을 살면서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신부를 찾고 있는 우수에 찬 남자’로 만들었으니,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백작이 친구 먹자고 덤벼다가 그 자리에서 슈퍼맨까지 만나 삼총사를 결성하고도 남을 일 아닌가!

여기 또 멋지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또 다른 남자가 있다.

강원 감사 이형욱(李馨郁)이 치계하였다. 간성군(杆城郡)에서 8월 25일 사시 푸른 하늘에 뺨뺨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우렛소리가 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즈음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니,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렛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났습니다.

원주목(原州牧)에서는 8월 25일 사시 대낮에 붉은색으로 베처럼 생긴 것이 길게 흘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천둥소리가 크게 나다가 잠시 뒤에 그쳤습니다.

강릉부(江陵府)에서는 8월 25일 사시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컷으며, 하늘 한가운데서부터 북방을 향하면서 마치 땅에 추락할 듯하였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형상이 점차 커져 3, 4장(丈) 정도였는데, 그 색은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연이어 흰 기운이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천둥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天地)를 진동했습니다.

-광해 1년 8월 25일

그렇다! 미확인비행물체가 조선 상공에 나타난 것이었다. <광해군일기>에는 같은 날, 춘천부와 양양부에서의 목격 사례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재로 차용한 드라마가 바로 <별에서 온 그대>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도민준은, 바로 당시에 불시착한 우주선에서 나온 외계인으로 다사다난한 한국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거지반 한국인이 되어, 현재 모 대학의 교수로 살고 있다. 불로에 엄청난 능력까지 지닌 도민준은 배우 김수현의 매력과 상대역인 배우 전지현과의 훌륭한 케미스트리에 힘입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

사실 우리 조상들이 상상했던 기이한 인물이나 사물, 현상은 어둠과 핏박 속에서 싹을 틔웠다. '귀신'이라고 하면 억울한 죽임을 당한 민초, 그중에서도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풍채 좋은 대감마님이 떠오르진 않는다. 평생 평평거리며 잘 산 대감마님이 굳이 귀신씩이나 돼서 사람들을 번거롭게 한다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은가.

우리 고유의 귀신 중 ‘두억시니’라는 존재가 있다. 열대여섯 살 정도 되는 흉악한 소년의 모습으로 부자의 잔치집에 나타나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나가라고 잡아끌고 때려도 꿈쩍도 않는다. 모두 지쳐 나가떨어질 때에야,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머리를 조아리면 아이는 비웃음을 띠며 나갔다. 다음날부터 그 마을에 열병이 돌기 시작했고, 아이를 잡아끌고 때렸던 이들은 모두 머리가 깨진 시체로 발견되었다. 왜 하필 아이였을까! 평소엔 어른들에 짓눌려 짹 소리로 못하는 아이,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먹질 당하고 발길질 당했던 종놈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억시니’는, 힘없는 자를 때리던 이들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집단 죄책감 덩어리일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힘센 아이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다.

‘아기장수’ 설화만 봐도 그렇다. 가난한 백성의 집에 태어난 아기장수는 생후 사흘째 말을 하고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 날아다녔다. 그러나 아이가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한 부모에 의해 아이는 죽임을 당한다. 간혹 아기장수 스스로 바위 속에 들어갔다는 결말도 있지만, 그 또한 사회적 죽음과 마찬가지로다.



MBC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중 ‘아모개(김상중)’가 비범한 아들 ‘길동(이로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좌). ‘길동(이로운)’이 무거운 돌절구를 가벼운 발길질로 날려 보내는 모습(우)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은 ‘아기장수’ 설화를 그 소재로 삼았다. 이 드라마에서 길동의 아버지 아모개는 어린 길동의 힘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보호하고자 재물을 모으고 면천을 꾀한다. 아모개가 두려워한 것은 길동의 힘이 아니라, 길동의 힘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믿는 ‘힘 있는 자들’이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길동 주변의 힘 있는 자들은 길동 부자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아모개는 아내의 죽음과 맞바뀌 길동을 지켜낸다. 물론 자신 역시 살인자가 되고서야 말이다.

앞서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 언급했지만, 아무리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대신 믿기로 결정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다. 때문에 고래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헛소문으로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켜왔다. 도깨비와 구미호와 두억시니가 죽인 사람보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제의 유언비어로 죽은 6000명의 조선인들이 더 많다. 이것이 정말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가!

현대에 와서 ‘가짜뉴스’는 더욱 많아졌고 더욱 심각해졌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 채널에 귀 기울인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온갖 오보와 왜곡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

다. 누군가의 의도로, 욕심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는 그 어떤 괴물보다도, 외계인보다도 무서운 힘을 발휘해 우리 사회를 찢고 동강 낼 것이다.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전설따라 삼천리’보다도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에 귀 기울이는 이들을 향해 영화 속 대사 한마디를 던져본다.

“절대 헐뜯이지 마소.”

작가 소개

홍윤정



1999년에 KBS 시트콤 작가로 데뷔,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작은 영화 <수상한 그녀>, <반창꼬>, <블랙가스펠>, <최강로맨스> 등이며, <수상한 그녀>로 춘사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했다.

저승의 모습 지옥도(地獄圖)

이번 호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에서는 지옥의 모습을 그린 지옥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영화 <신과 함께>를 통해 상상의 공간, '지옥'의 모습을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흥행만큼이나 한국인의 저승세계 중 하나 '지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승세계의 모티프가 된 '지옥도'라는 것이 어떤 그림인지, 그리고 지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김형수 선생님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옥도는 무엇인가요?

지옥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 지옥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지옥도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란분경변상도(감로도) 그리고 시왕도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란분경변상도는 육도 가운데 하나인 아귀(배고픈 귀신)의 세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감로도(地獄圖)는 지옥 아귀도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부처에게 설법을 듣는 불화이며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왕도는 지옥의 재판관인 10명의 왕이 죄를 짓고 끌려 온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 육도란?

6도는 지옥(地獄), 아귀(餓鬼:배고픈 귀신), 축생(畜生), 수라(修羅:아수라), 인간(人間), 천상(天上)으로 이승에서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가는 곳이 다릅니다



<용주사 감로도> 출처 : 「지옥도」 (이기선)

용주사는 효성스러운 정조 임금이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사찰이다. 왼편에 자리한 인로왕보살이 이끄는 화려한 영혼의 왕생 장면은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봉은사 시왕도> 출처: 「지옥도」 (이기선)

한 쪽에 3명의 귀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은 왼쪽부터 제 5 염라왕, 제 7 태산왕, 제 9 도시대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상단은 심판 장면 하단은 형벌을 다루는 장면으로 이루어졌으나 각 귀왕의 경계는 없다.

Q2. 그렇다면 지옥도에 그려지는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옥도에 그려진 지옥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이승에서 악업(惡業)을 지은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7명의 시왕을 만나며, 100일, 1년, 3년에 총 세 명의 시왕을 만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잘못이 있다고 나오면 지옥으로 가게 되며 그 지옥은 10가지가 있습니다. 흑암지옥, 화탕지옥, 도산지옥, 철상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거해지옥, 독사지옥, 한빙지옥, 풍도지옥 총 열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3. 지옥 중에서 도산지옥, 확탕지옥, 발설지옥에 대해서 지옥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용주사 감로도> 출처 : 「지옥도」 (이기선)
용주사는 효성스러운 정조 임금의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사찰이다.
왼편에 자리한 인로왕보살이 이끄는 화려한 영혼의 왕생 장면은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첫 번째로 도산지옥입니다. 칼로 된 숲이 있어 온몸의 살을 찌르거나 베어내는 곳이 바로 도산지옥입니다. 그림은 흥천사 시왕도의 도산지옥 부분으로 뾰족뾰족 솟은 칼날에 찢리는 죄인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옥졸이 무기를 들고 죄인을 끌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옥, 거해지옥, 독사지옥, 한방지옥, 풍도지옥 총 열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엄사 시왕도 확탕지옥> 출처 : 「지옥도」 (이기선)

두 번째로 확탕지옥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 무쇠솥을 걸고 그 속에 쇠물을 펄펄 끓여 죄인을 무쇠솥 안에 넣는 곳이 확탕지옥입니다. 그림은 화엄사 시왕도의 확탕지옥인데요, 활활 뜨거운 불길이 무쇠솥을 덥히고 있고 펄펄 끓어오르는 무쇠솥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고통을 받는 죄인들, 옥줄이 장대로 꿰어 죄인을 무쇠솥 속에 집어넣으려 하는 그림입니다.



<홍천사 시왕도 발설지옥> 출처 : 「지옥도」 (이기선)

세 번째로 발설지옥입니다. 발설지옥은 형틀에 매달린 죄인의 입에서 혀를 뽑아내어 몽둥이로 짓이겨 크게 부풀게 한 다음, 발을 갈 듯이 소가 쟁기로 혀를 갈아엎는 고통을 주는 지옥입니다. 그림은 홍천사 시왕도의 발설지옥인데요, 형틀에 매단 죄인의 입에서 혀를 길게 뽑아내어 소가 끄는 쟁기로 발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입으로 짓는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Q4. 지옥이라는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옥이라는 것은 상상의 세계이자, 불교의 세계관이 담긴 곳입니다. 과거 지옥도의 가장 큰 교훈은 지옥을 무섭게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승에서 지은 죄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은 하나의 두려움이자 사후세계를 편하게 지내기 위해 이승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하나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 리 하해빈(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도움말 김형수(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수석연구원)

발행일 2018년 10월 1일

발행처 한국국학진흥원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36605)
전화 054-851-0754
홈페이지 story.ugyo.net
블로그 blog.naver.com/storyugyo
전자우편 story@koreastudy.or.kr

총괄/기획 김민욱(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디자인 김용원(디아이)

제작 김기해(단아코퍼레이션)